

# 2024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2. 감사기간

- 2024. 11. 4(월) ~ 11. 17(일), <14일간>
- ※ 제327회 정례회 기간 : 2024. 11. 1.(금) ~ 12. 20.(월), <50일간>

### 3. 감사 중점사항

#### 가. 재난안전실(재난안전기획관, 도로기획관) 및 산하 도로사업소(6)

##### (1) 재난안전실(재난안전기획관)

- 안전관리위원회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재난상황 전파 및 사회재난·폭염·한파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재난안전실(도로기획관)

- 도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지하도상가 관리 및 지하도 상가 정책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보도관리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기술 지원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 (3)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 및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나.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다. 물순환안전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2)

### (1) 물순환안전국

-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물순환 정책,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 풍수해 대책, 하천·유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조정 to 관한 사항

-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 중량 및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 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처리시설(탈수시설 포함)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 라. 건설기술정책관 및 산하 사업소

### (1) 건설기술정책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응역에 관한 사항 등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 건설업 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부실공사 제로 대책 등 건설 혁신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노후 건축물,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

##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 · 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시험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 마.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 교량 · 치수시설 · 하수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 ·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 · 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등

## 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시설(하수, 슬러지, 분뇨, 차집관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재이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시설 중 공단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된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내 기타 부대시설(체육시설, 주차장, 사택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강 동 길	·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의사지원팀장 고은미
부위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 용 호 박 칠 성	· 전문위원 박남권 · 입법조사관 심현보 · 입법조사관 권혁일 · 입법조사관 정민선 · 입법조사관 김성연
위 원	국민의힘 " " " " " " 더불어민주당	김 동 욱 김 혜 지 남 창 진 박 성 연 이 은 림 최 민 규 봉 양 순 성 흡 제	· 입법조사관 남기태 · 행정6급 홍민아 · 행정7급 백제리 · 행정7급 구본장 · 관리운영7급 공혜정  ※ 속기요원(2명) 음향 및 녹취요원(1명)

## II . 감사 수감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소관부서)
11월 4일(월) 10 : 00	재난안전실	도시안전건설 위원회의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안전기획관</li> <li>○도로기획관</li> <li>○재난안전정책과</li> <li>○재난상황관리과</li> <li>○재난안전예방과</li> <li>○중대재해예방과</li> <li>○도로계획과</li> <li>○도로관리과</li> <li>○보행환경개선과</li> <li>○도로시설과</li> <li>○교량안전과</li> <li>○도로사업소(6개)</li> </ul>
11월 5일(화) 09 : 30	재난안전실	▶ 현장확인감사	
11월 6일(수) 10 : 00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 위원회의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행정과</li> <li>○재난대응과</li> <li>○예방과</li> <li>○안전지원과</li> <li>○현장대응담당관</li> <li>○소방감사담당관</li> <li>○서울종합방재센터</li> <li>○소방학교</li> <li>○119 특수구조단</li> <li>○소방서(25개)</li> </ul>
11월 7일(목) 09 : 30	소방재난본부	▶ 현장확인감사	
11월 8일(금) 10 : 00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안전건설 위원회의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변감성도시과</li> <li>○치수안전과</li> <li>○물재생계획과</li> <li>○물재생시설과</li> <li>○물재생센터(2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기술본부</li> <li>○물재생운영본부</li> </ul>
11월 11일(월) 09 : 30	물순환안전국	▶ 현장확인감사	
11월 12일(화) 10 : 00	건설기술정책관	도시안전건설 위원회의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심사담당관</li> <li>○건설혁신담당관</li> <li>○지역건축안전센터</li> <li>○품질시험소</li> </ul>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부</li> <li>○토목부</li> <li>○건축부</li> <li>○설비부</li> <li>○방재시설부</li> </ul>
11월 13일(수) 09 : 3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현장확인감사	
11월 14일(목) 14 : 00	종합감사	도시안전건설 위원회의 회의실	
11월 15일(금)	감사결과 정리		

### III.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합 계	298	211	37	50
재난안전실 (도로사업소 포함)	83	61	7	15
소방재난본부	67	51	0	1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포함)	42	25	11	6
서울물재생시설 공단	12	7	4	1
건설기술정책관 (품질시험소 포함)	34	19	8	7
도시기반시설 본부 (시 설 국)	60	48	7	5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211건

[재난안전실] — 61건

1.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시범 적용한 버스 정류장 뿐만 아니라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까지 재강슬래그가 포함된 강성포장을 확대 추진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2. 경계석이 미끄러워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계석 미끄럼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3. 영동대로 북단 고가 방음시설 수선 유지 총당금을 시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대책을 마련할 것  
(박성연 위원)
4. 광진교 하부공간 계단이 개방되어 있어 시민들 이용에 위험한 측면이 있는바, 정비할 것  
(박성연 위원)
5. 성수역 출구와 같이 CCTV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지역은 보행 공간 확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박성연 위원)
6. 보도와 관련하여 최소유효폭 1.5m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  
(박성연 위원)
7.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구간 자료 검토 후 정비 가능한 지역은 정비할 것  
(이은림 위원)

8.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배상금 지급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은림 위원)
9. 재난문자 발송 시 도로통제 구간에 대해 정확히 기재할 것  
(이은림 위원)
10. 지주설치 위치 관련 민원이 많은데 지하에 매설하는 등 해결 방법을 강구할 것  
(이은림 위원)
11. 교통안전시설 중 제어기와 관련하여 침수 시 이상없도록 신속히 교체할 것  
(이은림 위원)
12. 경계석, 점자형 보도블록은 미끄러우므로 미끄럼방지를 위해 안전한 재질로 교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이은림 위원)
13. 공사장 안내판에 현장소장 연락처(공용 휴대폰)를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최민규 위원)
14. 돈화문로 11길 일대 포차거리 및 동묘시장에는 보행위험 요소가 많아 위험하므로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최민규 위원)
15. 차량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지하매설물 등이 연

쇄적으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  
(최민규 위원)

16. 신호수 종사자 안전장비가 부실하고 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적  
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사장 신호수 안전 관련 대  
책을 마련할 것  
(최민규 위원)

17.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 특별교부금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교부되어 집행되지 못하는 집행 문제가 있는데, 향  
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강동길 위원장)

18. 세굴방지공에 대해 일정한 주기로 점검 할 것  
(남창진 위원)

19. 교량 상부 구조에 비해 교량 하부 구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임. 교량 하부 관리를 위해 정확히  
유속 데이터를 관리 할 것  
(남창진 위원)

20. 최근 5년간, 수중구조물 점검 용역 낙찰 업체가 달라도 잠수  
부는 동일한 부분에 대해 점검할 것  
(남창진 위원)

21. 광진교, 성산대교 등 손상이 발생한 후 4~5년이 지나 보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손상을 방치하지 말 것  
(남창진 위원)

22. 수중 구조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수중 구조물 균열에 대한 기준 강화를 추진토록 할 것  
(남창진 위원)
23. 수지계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속히 보수할 것  
(남창진 위원)
24. 한강교량의 안전상 문제를 고려하여 원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 추가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  
(성흠제 위원)
25. 잠수교 공중 보행로 공모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해 철회된 사례가 있는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성흠제 위원)
26. 한강버스라는 새로운 대중교통 운행 추진에 대해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바, 사전에 시민의 안전 및 재난 안전 관점에서 철저한 검토 후 시행할 것  
(성흠제 위원)
27. 최근 5년간 지하도상가 공기 중 TVOC(휘발성 유기화합물) 평균 농도가 증가 추세 중에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9개소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성흠제 위원)
28. 포트홀이 '22.~'24.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

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봉양순 위원)

29. 지하도상가 임대료 체납 해결을 위해 세무조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봉양순 위원)

30.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매우 많고 예산 집행 지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연도 내 예산집행이 가능토록 계획성 있게 사업추진 일정을 정하여 예산 집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봉양순 위원)

31. 안전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 참석 위원이 중복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김동욱 위원)

32. 안전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비롯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출석률 50% 미만인 위원들을 해촉할 것  
(김동욱 위원)

33. 어린이안전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다수 발견된바,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  
(김동욱 위원)

34. 아치 단부 물고임, 방호울타리 기둥 밑판 부식, 암사IC 하류부 방음벽 유리파손, 교통안전시설물에 광고물부착, 유지관리용 보행로 관리 미흡, 교각손상 등 구리암사대교 여러 부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시정 조치할 것  
(김혜지 위원)

35. 시설물 대장에 있는 암사동 신사아파트는 없어진 아파트로 수정할 것  
(김혜지 위원)
36. 암사지하차도 터널 높이와 관련해 관리대장과 실제 측정 치가 7cm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기록관리토록 할 것  
(김혜지 위원)
37. 암사지하차도의 경우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고 손상이 있는 상황임에도 상태등급이 A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재평가를 실시할 것  
(김혜지 위원)
38. 고덕천교에 균열 등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할 것  
(김혜지 위원)
39. 지중화 사업은 주민 민원이 많은 사업으로 신속히 진행할 것  
(김혜지 위원)
40. 신기술 도입 등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 터널 끼임 사고 및 오진입 사고를 방지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41. 서부간선지하도로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방안을 마련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42. 수출의 다리 사업이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43. 구로IC 도로구조 개선 사업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문제없이 잘 진행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44. 서소문고가 개축 지연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만큼 더 이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할 것  
(강동길 위원장)
45. 공동구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하는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도입을 추진할 것  
(성흠제 위원)
46. 지반침하로 피해입은 시민에게 충분한 보상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47.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반침하관측망 등 신기술 도입으로 지반침하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시민제보사항 [붙임]연번2,3 참조)
48. 제설제를 충분히 비축하여 이상기후에 대비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49. 의료파업으로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1,000억을 부담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보전대책을 강구할 것  
(강동길 위원장)
50. 재난안전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남창진 위원)

51. 방음터널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52.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도 육안으로 하자가 있는 구간이 많이 목격되고 있음. 기존 설치된 105개소의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 전후를 비교하여 안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53. 구로구 IC 구조 개선 사업 관련 4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검토하여 문제없이 진행하기 바람  
(박철성 부위원장)
54. 2호선 신림역~신대방역 구간에는 방음벽이 설치된 반면, 신대방역~대림역 구간에는 설치되지 않음. 이에 대해 소관 부서와 논의 바람.  
(박철성 부위원장)
55.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노후된 공공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유지 보수 미흡으로 개선사항 요청 1) 서울 내 주요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정기 점검 주기 강화. 2) 긴급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예산 우선 배정. 3) 사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인프라 단계별 보수 계획 수립. 4)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신고 플랫폼 운영.  
(〔붙임〕연번1 참조)
5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통신사 지주, CCTV, 교통안내 표지판 지주 등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도시 미관도 저해하는 만큼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주 설치 인

가 및 관리 감독처를 일관화 할 것을 요청함.

(〔불입〕연번5 참조)

57.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횡단보도 턱낮춤이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 설치되고 있으나 오히려 좁거나 제거되지 못한 시설물들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는 만큼 보도의 턱낮춤보다는 횡단보도의 턱을 인도만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함.

(〔불입〕연번6 참조)

58.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경부고속도로 내 죽전역 임시정거장이나 가천대역 임시정거장과 같이 복잡한 도심에 들어오지 않아도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올림픽대로 인근 천호역이나 암사역 등 전철과 연계되는 지점에 임시정거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함.

(〔불입〕연번7 참조)

59.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영등포구 소재 도림동 보도블럭과 경계석 교체 공사 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선방안을 요청함.

(〔불입〕연번8 참조)

60.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수락고가차도의 방음벽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주민설명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수락고가차도 공사 지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불입〕연번9 참조)

61.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서면질의] 보도의 낙엽을 차도로 날려 보내 방치함으로써 차도 배수로가 막히는 일이 발생하고 운행하는 차량으로 낙엽이 날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보도의 낙엽을 바로 포대에 담아 치우거나 보도와 차도의 낙엽을 동시에 청소하는 등 방안 마련을 요청함.  
((붙임)연번10 참조)

## [소방재난본부] — 51 건

1. 소방청의 언론 대응 지침(2024.9.14.)은 소방대원들의 언론 접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와 대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강동길 위원장)

2.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2024년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후 회계연도부터 소방 분야에 동일한 비율로 예산이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임.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예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강동길 위원장)

3. 현재 소방관 신입 교육 기간은 6개월(24주)로 간부후보생 교육기간인 1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다만, 소방대원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다방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임. 따라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법정 교육기간 개선을 위해 소방청에 적극 건의할 것.

(강동길 위원장, 최민규 위원, 봉양순 위원)

4. 과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전문교육과정의 훈련 기간(현재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3일,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지휘관 양성 1일)의 확대와 교육 내용의 심화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강동길 위원장)

5.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전반기와 후반기 구분 없이 관내 25개 소방관서에서 각각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합동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6. 도봉구 아파트 화재와 부천 숙박시설 화재 등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 훈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대단지, 고층 건물, 학교, 병원, 호텔 등의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구청, 시민, 소방서가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7. 부천 호텔 화재 시 에어매트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므로 소방재난본부는 에어매트의 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에어매트 설치 및 운용이 화재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현장 중심의 훈련 방안을 강구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8.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연기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피난용 소방용품의 도입이 필요한 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소방용품 개발의 필요성을 소방청에 적극 건의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특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서 노후 전선 교체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자부담이 많아 신청이 저조하여 전통시장은 여전히 전기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황임.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적극 협력하여 노후 전기 시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10.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었고 서울시 내 전통시장 346개소에 자율소방대가 전부 구성된 만큼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11. 남구로, 광장, 까치산, 마장축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진된 화재순찰로봇의 시범운영 결과, 화재발생 제로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따라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상인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화재순찰로봇 운영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12. 지난 10월 28일 소방재난본부의 화재증거물 감정센터가 소방청이 인증하는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되었음.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의회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13. 전기자동차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리튬 전용 D급 소화기나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관련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의 신제품 개발이 지연 중임. 이에 소방청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남창진 위원)
14. 화재 대피를 위한 완강기 불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완강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한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남창진 위원)
15. 현재 소방재난본부는 종로, 중부 소방서를 제외한 23개소 소방서와 보라매와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에서 완강기 체험시설을 운영중이나, 이 중 실제 탑승하여 내려오는 체험이 가능한 곳은 19개소이며 더욱이 성인 체험시설은 단 6개소에 불과함. 따라서, 모든 연령층에게 완강기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완강기체험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것.  
(남창진 위원)
16. 인천 청라 전기차 주차장 화재를 통해 관로 보온재로 인한 화재 확산, 연기로 인한 유도등 식별 불가, 인접 차량 화재 확산 방지 대책 부재 등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소방재난본부는 이를 서울시 시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소방청과 행안부에 적극 건의할 것.  
(남창진 위원)
17. 소방사다리차는 진입이 어려운 고층 화재에서 소방대원들의 신속

한 화재현장 투입과 인명 구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존의 소방사다리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화재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사다리차의 추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

(남창진 위원)

18. 소방학교는 신규 임용 예정자, 전문교육 대원, 그리고 민간교육 참가자 등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시설로, 교육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교육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남창진 위원)

19. 다수의 소방관 사상자가 발생한 양천구 목동 아파트 화재 및 폭발 사고 당시 'SOP 200 화재대응 공통 표준작전절차'에 따른 사전 조치인 가스 차단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정보가 상황판과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부실함이 확인됨. 이러한 문제를 교훈 삼아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

(성흠제 위원)

20. 소방이 도입을 추진 중인 소방선박(702호)은 도입시기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 시기는 2025년 3월로 시기적 차이가 있어 한강에서의 안전상 공백이 우려된다 하겠음. 이에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한강버스 운항 일정이 소방선박 도입 시기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 할 것.

(성흠제 위원)

21. 전기차 및 지하철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복합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는 특수 대응팀 창설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성흠제 위원)

22. 해외 실화재 훈련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나리오 기반 훈련 설계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훈련 중 안전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성흠제 위원)

23. 소방이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행정안전부 기준인 60점보다 10점 높은 70점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 평가로 인한 업체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높은 낙찰률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김혜지 위원)

24. 서울시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501동, 617명)의 일부가 화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소화기와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닐하우스의 화재 안전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김혜지 위원)

25. 개인용 이동장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건수가 106건에 달하며 특히, 개인 소유 이동장치는 현관 앞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대피가 어렵고, 공용 이동장치는 한 장소

에 밀집되어 있어 연소 확대의 우려가 크다 할 것임.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안전한 사용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김혜지 위원)

26. 심리 상담의 본질은 직접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음. 따라서, 더 많은 대원들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찾아가는 심리 상담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담 의사 및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봉양순 위원)

27. 비대면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대 저연차 공무원은 37건, 50대 이상 중장년층 공무원은 24건으로 집계되어 해당 연령층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미흡한 것이 확인됨. 이에 다양한 연령층의 소방공무원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여 상담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봉양순 위원)

28.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비밀업무 등 보안업무 관리 부실 등 동일한 문제가 매년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바 소방재난본부는 감사 결과에 의한 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강구할 것.

(봉양순 위원)

29. 각 소방관서에서 시행된 적극행정 수범사례 중 유용한 사업을 발굴하여 서울시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봉양순 위원)

30.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은 총 180명으로, 이들의 육아 휴직 등 정당한 권리 사용이 보장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공무원과 공무원 간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봉양순 위원)
31. 신속동료구조팀(RIT)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상 및 순직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봉양순 위원)
32.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민 수탁교육 확대는 교육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교사 대상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적극 도모해 줄 것.  
(봉양순 위원)
33. 최근 부실한 소방 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관서별 급식 단가를 확인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관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중인 만큼 소방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시에 서울소방공무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  
(이은림 위원)
34. 월드컵대교, 올림픽대교, 구리암사대교의 CCTV 설치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이 확인됨. 이에 대해 가처분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문제를 신속히 해

결하여 한강안전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이은림 위원)

35. 코로나19 이후 시민안전체험관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을 새롭게 발굴하고, 수난 사고를 포함한 급류와 침수 상황 등을 가정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은림 위원)

36. 소방대원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디오북이나 도서 등 힐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대원들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휴식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은림 위원)

37. 소방대원의 안전 장비는 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환경의 특성상 수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모품 지정이나 내구연한 단축을 소방청에 적극 건의하여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할 것.

(이은림 위원)

38.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119 구급대의 대응은 응급처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후 병원 이송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치구에서 보호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아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호자 연락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한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이은림 위원)

3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관용 차량 운행 및 관리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은 문제 해결 의지의 부족을 의심케 하는 바임. 이에 대한 소방에 즉각 개선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박성연 위원)
40. 소방대원들에 대하여 요양을 요하는 심각한 부상 사례 등 구체적인 통계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순직자 유족과 공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박성연 위원)
41. 소방대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더 높은 내열성과 안전성을 갖는 FBI 소재 등의 방화복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박성연 위원)
42. 현행 수당 체계가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여지는 바, 소방청 및 인사혁신처에 적극 건의하여 야간 수당, 구급활동비, 위험 근무 수당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박성연 위원)
43. 소방서의 열악한 출동 대기실 환경으로 남녀 공간 구분이 어려운 현실임. 최근 사생활 보호와 근무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출동 대기실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박성연 위원)
44. 실화재 훈련장의 교관 업무는 고위험성과 업무 강도로 인해 상대

적으로 기피 부서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 충원 및 지속적인 전문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박성연 위원)

45.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민원 대응 부담 등으로 최근 3년간 화재 진압 중 주차 차량 강제 처분 건수는 단 2건에 그치고 있음. 이에 민원 처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강제 처분에 대한 소방대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최민규 위원)

46. 2024년 기준, 소방차 출동 중 사고 건수 32건 중 18건(56.2%)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긴급 차량 길 터주기를 위한 시민안전 홍보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최민규 위원)

47. 도로 경계석이 높아 차량이 긴급 상황에서 피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로 경계석 높이를 조정하고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여 차량이 긴급 상황에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

(최민규 위원)

48. 최근 서울시 관내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시 비용 요구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동일 교육 대상에 유상·무상 교육 혼용 또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사례가 드러남. 이는 소방안전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상·무상 교육의 명확한 기준

을 마련하고 철저한 감독 방침을 수립할 것.

(최민규 위원)

49. 북한산 산악구조대 청사 축조 과정에서 법적 규제와 적법성 검토의 미흡으로 인해 설계 변경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됨.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축소된 산악구조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

(최민규 위원)

50. VR 장비를 활용한 소방시설 교육은 공간의 제약 없이 다수의 교육생이 동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임.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최신 기술이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첨단 교육 장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보임.

(최민규 위원)

51. 구급차에 비치된 기계식압박장비는 기존의 대원들이 수동으로 처치하던 CPR을 자동으로 전환하여 요구조자에게 다양한 처치를 동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비이나, 현재 장비의 노후화 및 보급률이 87% 수준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의 교체와 구급차량에 각 1대씩 운영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추천할 것.

(위원회)

## [물순환안전국] — 25건

1. 중량물재생센터 하수도과학관 등에 설치된 인공습지나 각종 편익시설이 노후되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바, 편익시설을 비롯한 시민이 이용하는 주변 시설들을 일제 점검하여 조속히 조치할 것.  
(김혜지 위원)
2. 하수관로 내 유수장애 시설물이 자치구별로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유수단면적을 협소하게 하여 하수 흐름의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바, 이전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3.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사업 등이 주민협의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바 주민들과 고양시 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성흠제 위원)
4. 하수슬러지의 처리방식 중 건조 방식과 탄화 방식을 비교해서 중량 감소 효과와 악취 감소 효과, 운영 효과 등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를 검토하여 하수슬러지 처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남창진 위원)
5. 2017년에 수립한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급자족 종합계획’에 따른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그동안 달성하지 못했고 2025년 목표인 73% 역시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바, 현실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최민규 위원)

6. 빗물받이가 불법 덩개와 쓰레기로 막혀 제 기능을 못 해 집중호우 시 심각한 침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조례상 빗물받이 청소 횟수를 재검토하는 등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최민규 위원)
7.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최민규 위원, 박성연 위원)
8. 탄천물재생센터 주변 도로상에서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 파악과 함께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김동욱 위원)
9. '25년도에 청계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진출입로 철재 계단 등이 노후되어 위험하거나 미관상 좋지 않아 보이므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0. 아이들의 사용이 빈번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에서 과거 수질기준 대비 18배의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봉양순 위원)
11.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 오염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물순환안전국이 수년간 정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소송과 비용 환수라는 비효율적인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봉양순 위원)

12. 물순환안전국 기술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독점계약을 방지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약 사항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선토록 할 것.

(이은림 위원)

13. 서울시의 지반침하 문제는 노후 하수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체 작업의 가속화와 재정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재난관리기금 및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신속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은림 위원, 김용호 부위원장, 시민제보사항 [붙임]연번2,3 참조)

14. 용산 어린이 공원의 경우 토양 내 비소 및 납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화 없이 개방되어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민 안전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인 정화계획을 수립토록 할 것.

(성흠제 위원)

15.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이나 족구장, 강아지놀이터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데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빗물펌프장 복합화 사업에 포함하여야 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것.

(박성연 위원)

16. 현재 탄천물재생센터에만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 환경적 부담이 불균형하게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

(박성연 위원)

17.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순차적 멸실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아직은 그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침수 위험이 있는 반지하주택 및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토록 할 것.

(박성연 위원)

18. 하수악취 관리목표제 3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자치구별 평가점수 중 50점 미만 자치구가 2022년 이후 오히려 계속 늘고 있어 하수악취 관리목표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심되므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강동길 위원장)

19. 현행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적립 방식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바 매년 일정 비율의 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강동길 위원장)

20. 현재 추진 중인 강남역·도림천·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에 대해 사업이 늦어져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강동길 위원장, 시민제보사항 [붙임]연번4 참조)

21.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건물 하중 문제 등으로 건

물주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하중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할 것.

(강동길 위원장)

22. 물재생센터 내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파크골프장 외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김동욱 위원)

23. 총인처리시설 확충 등 물재생센터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위한 소요 예산이 막대한 만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중·장기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남창진 위원)

24. 하수관로 수위계의 고장이 잦아 유지관리 어려움 및 강우 시 활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적기에 고품질의 제품을 확보하여 침수 피해 예방을 제고할 것.

(김동욱 위원)

25. 현재 규정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회의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물재생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성흠제 위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7건

1. 하수슬러지의 처리방식 중 건조 방식과 탄화 방식을 비교해서 중량 감소 효과와 악취 감소 효과, 운영 효과 등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를 검토하여 하수슬러지 처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남창진 위원)
2. 2017년에 수립한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급자족 종합계획’에 따른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그동안 달성하지 못했고 2025년 목표인 73% 역시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바, 현실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최민규 위원)
3. 탄천물재생센터 주변 도로상에서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바, 원인 파악과 함께 악취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  
(김동욱 위원)
4. 탄천물재생센터 마루공원 등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이 노후되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바, 편의시설을 비롯한 시민이 이용하는 주변 시설들을 일제 점검하여 조속히 조치할 것.  
(김혜지 위원)
5.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최근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바, 타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강력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

단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  
(남창진 위원)

6. 서남물재생센터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효율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한 설계관리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한바 이에 대해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조치를 통해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김혜지 위원)

7. 현재 규정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회의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고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물재생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성흠제 위원)

## [건설기술정책관] — 19 건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등 참여율이 저조하여 심의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위원 참여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것.  
(김혜지 위원)
2. 현행 하도급 실태 점검 기준으로는 관리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반복적 위반 사례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반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  
(최민규 위원)
3. 기술용역 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건부 적정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사후 결과의 등록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최민규 위원)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심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별 참석률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김동욱 위원)
5.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중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필수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자치구가 일부 존재하므로 해당 자치구를 독려하여 조속히 충원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6. 하도급 사전 승인 심사제도가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심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당초 운영 목적과 부합하도록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  
(성흠제 위원)
7. 청계천로 차집관로 보수공사에서 무자격자 하도급, 미승인 하도급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더해 입찰 참가 제한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것.  
(박성연 위원)
8. 서울시의 부실공사 방지 정책은 감리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마련할 것.  
(박성연 위원)
9. 자치구 기술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자치구들을 독려하여 위원회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박성연 위원)
10. 우수 건설현장 표창 수여 업체 중 과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수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이은림 위원)
1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장에 대한 점검 실적이 미흡하므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시행할 것.  
(이은림 위원)

12.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에 있어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 수준을 강화할 것.  
(이은림 위원)
13. 민간 공사장의 불법하도급 점검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자체 점검 실적이 미흡하므로 이를 적극 독려하고 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이면 계약이나 허위 사실 기재 등 서류 위조 행위의 확인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검증 방안을 마련할 것.  
(봉양순 위원)
14. 불법하도급 업체의 현황 파악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의존하는 점검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자체적인 불법하도급 업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봉양순 위원)
15.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자문단의 위축,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자문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할 것.  
(봉양순 위원)
16. 매년 10~15% 발생하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의 지속적 문제를 건설업계의 관행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원도급의 문제로 확인된 페이퍼컴퍼니 등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강동길 위원장)

17. 서울시는 올해 건설상 시상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야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대외 홍보와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등 시상 제도의 품격을 제고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18. 건설공사 계약금액 순회 점검의 주기와 실적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2~3년간 미조치된 사항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하고 점검 이후의 이행 상황과 제재 방안을 강화해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

(남창진 위원)

19.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 계량기 지정에 따라 유효기간과 재검정 주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고장 횟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내년 예산에 수리재검정 시스템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할 것.

(봉양순 위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48 건

1. 서울시의 간접비 청구 거부로 소송이 진행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한 바, 관행적으로 작성되는 합의각서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할 것.  
(김혜지 위원)
2. 서울 영화센터 건립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추가 간접비가 발생한 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공기 산정 부분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  
(김혜지 위원)
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당초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방음벽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하였는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김혜지 위원)
4.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장기간 공사 진행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김혜지 위원)
5. 하수관로 공사에도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할 것.  
(남창진 위원)
6. 도기본 발주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스마트 안전기술의 적용 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교육도 철저히 병행할 것.  
(남창진 위원)

7. 유사한 규모의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비 적용 비율이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바, 이를 개선할 것.  
(남창진 위원)
8. 월드컵대교 안양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375%가 증액된 바, 증가된 공사는 별도 발주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남창진 위원)
9. 특정기술 선정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외부 심사위원의 비율을 늘려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  
(남창진 위원)
10. 특정기술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입찰공고와 부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것.  
(남창진 위원)
11. 성동교 확장공사의 특정기술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사 및 설계감리의 업무 소홀 등에 대해 부실벌점부과를 철저히 시행할 것.  
(남창진 위원)
12. 성동교 확장공사가 하천침용허가 미승인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개축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남창진 위원)
13. 공사장 신호수 관련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 관련 검토를 철저히 할 것.  
(최민규 위원)

14.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부과하는 벌점과 관련하여 경고 이력에 따른 벌점 부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최민규 위원)
15.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성동구에 서 별도 계획중이거나 실행중인 중랑천 관련 사업들로 인해 설계가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것들이 다수 발생된 바, 공사 연 장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나 공사 전 유관기 관과의 사전조율을 신중히 실시할 것.  
(최민규 위원)
16. 도시기반시설본부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 출석 률 50% 미만인 위원들은 전원 해촉할 것.  
(김동욱 위원)
17.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내용이 부실 한바,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할 것.  
(김동욱 위원)
18.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이 철거가 되지 않은 채 설계가 이루어져 지반조사가 이루어져 설계 변경이 발생한 바, 철거공정이 필요한 공사는 별도 발주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19. 서부간선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간 담회를 통해 주민과의 논의가 필요한 안전에 대하여 주민의견 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20. 공사중 미확정설계공정은 금액조정 없이 반영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으로 정하고 설계과정에서 추계하여 계상할 수 있는 공정은 당초 공사에 포함토록 할 것.  
(성흠제 위원)
21. 굴착공사 공법 선정에 있어 공사 현장 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신중히 선정할 것.  
(성흠제 위원)
22. 굴착 공사중 공사현장의 토질 변화에 따라 공법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성흠제 위원)
23.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수 가압식 세미셴드 공법이 연희동 지반침하의 원인일 수 있는 바, 공법 변경에 대해서 검토할 것.  
(성흠제 위원)
24.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언어 소통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도기본 공사현장에 실시간 통역시스템 적용을 확대 실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25. 전기차 화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도기본이 실시하고 있는 공사 현장 중 지하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 지상으로 설계 변경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26.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대해 지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곳은 지상층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화재 대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화재에 대비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27.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사장 내 화재 대응 설비를 마련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28. 신림봉천터널 등 기존 설계된 시설의 지하차도 화재 대응 설비 설치 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치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29. 준공 후 시민들이 많이 사용되는 시설의 경우 설계나 공사 중 스마트 안전기술을 갖춰 준공 이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30. 공사장 안전관리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31. 관급자재의 과도한 사급자재 전환은 공사비용 증액과 연결되는 만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박성연 위원)
32. 도기본 진행사업 중 공정률이 30% 미만인 공사를 살펴보면 민원이나 지장물, 하천점용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박성연 위원)

33. 도기본 발주공사 및 용역의 입찰공고가 변경된 사례 중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반영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입찰 공고시 철저한 검토로 공고 후 공고내용이 변경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  
(박성연 위원)
34. 도기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이 변경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는 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 공사기간 동안 근무가능한 현장대리인을 채용하여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은림 위원)
35.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발생이 다수 확인되는 바, 공사장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에 유념할 것.  
(이은림 위원)
36.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 영상을 재검토하여 관리감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은림 위원)
37. 보도 설치 시 최소 유효 폭을 확보토록 하고 기준 이하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비할 것.  
(이은림 위원)
38.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의 경우 당초 총 사업비 310억원으로 2019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으로 700억원으로 증액된 바 설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고 각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봉양순 위원)

39. 기후위기로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바 폭염 대비 공사장 점검 계획을 확대추진할 것.  
(봉양순 위원)
40. 폭염이나 장마 등 공사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봉양순 위원)
41. 공사장 휴게공간 및 냉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것.  
(봉양순 위원)
42.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이 가장 중요한 바 철저히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를 실시토록 할 것.  
(강동길 위원장)
43.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이 장기간 공사지연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더 이상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  
(강동길 위원장)
44.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착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45. 폭염 뿐만 아니라 강우, 한파, 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로 인한 공사감독의 작업중지 명령이 있을 경우 안심수당 지급으로 건설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46.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시공사 등 회사명이 포함되지 않은 채 제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바 이를 시정할 것.  
(강동길 위원장)
47.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영세업체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급 대책을 마련할 것.  
(강동길 위원장)
48. 안전지수제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안전한 공사장을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재난안전실] — 7 건**

1. 기술설명회 최소 분기별 1회 개최 필요하며, 내부적으로 기술 관련 면밀한 검토하기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2. 블랙아이스 방지포장 실증사업 확대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3. 제강슬래그 시범사범 사업을 내년도에도 2~3곳 시급한 곳 우선 실시하며,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시급한 곳은 신속히 보수해 주기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4.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선 제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람  
(박성연 위원)
5. 어린이 통학로 인근 500m 시간표시 적색신호등 증설해 주기 바람  
(이은림 위원)
6. 한강대교에서 동작으로 유턴하는 구간 신호등 설치 바람  
(최민규 위원)
7.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단절구간 타당성조사가 종료 되는대로 향후 계획과 함께 위원회에 보고할 것  
(강동욱 위원)

## [물순환안전국] — 11건

1.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원활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박철성 부위원장)
2. 타 하천 대비 도림천과 안양천 주변에 주민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안양천 피크닉장 조성 사업을 조속한 추진하기 바람.  
(박철성 부위원장)
3. 청계천 진·출입로 주변이 안전상·미관상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김용호 위원)
4. 최근 전기요금 단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어 물재생센터 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이용 시설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기 바람.  
(김용호 위원)
5. 청계천 내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특히, 보건 위생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봉양순 위원)
6. 하수 및 분뇨처리장 종사자 장려수당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공무원직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할 것.  
(봉양순 위원)

7.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하여 노후도가 높은 자치구를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이은림 위원)
8.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들의 사유를 파악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박성연 위원, 박철성 부위원장, 남창진 위원)
9. 물재생센터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력 소비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10. 물재생센터 위험구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연내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11. 유량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실효성 있는 침수예측 시스템 운영을 도모해 주시기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4건

1. 물재생센터 내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이용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람.  
(김동욱 위원)
2. 하수 및 분뇨처리장 종사자 장려수당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공무원직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할 것.  
(봉양순 위원)
3. 물재생센터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전력 소비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4. 물재생센터 위험구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연내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 [건설기술정책관] — 8 건

1.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력 및 장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 및 장비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박철성 부위원장)
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시 예산 절감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부실 시공 및 안전성 저하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과 품질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성흠제 위원)
3. 공공공사를 도급하는 업체 중 감리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박성연 위원)
4. 보도의 경계석과 점자 보도블록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이은림 위원)
5. 주요 공종의 직접 시공과 관련해 공동이행 방식과 주계약자 공동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12월 3일 상임위 토론회에 참석하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강동길 위원장)
6.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된 상황을

고려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7. 고용개선지원비와 관련하여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김용호 부위원장)

8.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술사 자격증 취득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람.

(남창진 위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7 건

1.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봉은사역 구간에 대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와 관련하여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횡단 보도 대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보니 무단횡단이 많아지고 있는바,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이중 횡단보도를 제거할 것.  
(김동욱 위원)
2.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삼성역 방면 공사로 인해 좌회전 차선이 명확하지 않아 교통정체가 심할 뿐만 아니라 그 구간의 버스 전용차선으로 인해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사중에는 일시적으로 버스전용차선을 해제할 것.  
(김동욱 위원)
3. 구일역 육교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방안을 검토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4. 책임감 있는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이은림 위원)
5.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구청장, 시·구의원 등 지역 대표들과의 간담회 실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박철성 부위원장)
6.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상부 도로의 교통 체증이 우려되는 바,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할 것  
(김동욱 위원)
7. 신기술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김용호 부위원장)

다. 기 타(자료제출 등) ..... 50건

**[재난안전실] — 15 건**

1. 어린이 통학로 관련 교통실, 교육청에서 온 공문 제출  
(이은림 위원)
2. 구로 IC 구조개선 추진 현황 제출  
(박철성 부위원장)
3. 한강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 제출  
(봉양순 위원)
4. 버스중앙전용차로 강성포장 실적 및 계획  
(김용호 부위원장)
5. 각 도로사업소별 버스정류장 강성포장 계획  
(김용호 부위원장)
6. 재강슬래그가 포함된 고강성 콘크리트 추가 설치 계획  
(김용호 부위원장)
7. 제설제 및 친환경 제설제 구매계획, 발주 현황 제출  
(김용호 부위원장)
8.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자동염사분사장치 자치구별로 현황 제  
출 (설치연도, 설치비용 포함)  
(강동길 위원장)

9. 재난안전실 소관 기술설명회 내용 및 결과 제출  
(김용호 부위원장)
10. 외국인노동자 보호방안 및 가이드라인 검토 계획 제출  
(박성연 위원)
11. 성능개선충담금 관련 법령개정 건의한 자료 제출  
(이은림 위원)
12. 2018년 정밀안전점검 점검 방식과 현재 개선된 정밀안전점검  
대조표 제출  
(강동길 위원장)
13. 서소문고가 교통 대책 자료 제출  
(강동길 위원장)
14. 행정사무감사 중 옹벽, 석축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관련 자료  
보완 제출  
(봉양순 위원)
15. 방호울타리 관련 300억 특교금 중 차량용 방호울타리 43억  
외 예산의 집행내역 (자치구별)  
(강동길 위원장)

## [소방재난본부] — 16건

1. 찾아가는 상담실 24시간 콜센터 실적 및 비대면(전화 등)을 통한 심리상담 운영 현황  
(봉양순 의원)
2. 119 안심병원 운영(위치, 지정일, 실적 포함) 현황  
(봉양순 의원)
3. 공무원 관련 부서운영비 편성 기준,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봉양순 의원)
4. 소방서별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대처 매뉴얼' 등 배포 실적  
(김용호 부위원장)
5. 전기차(버스) 화재대응 합동훈련 현황 및 향후 계획(김용호 의원)  
(김용호 부위원장)
6. 주거용 비닐하우스 단지 중 강동(둔촌동, 고덕동)과 강남(울현동) 일부에 단독경보기 및 보이는 소화기가 미설치된 사유  
(김혜지)
7. 2024년도 서울시 관내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 결과 제출  
(남창진 의원)
8. 소형사다리차 장·단점 및 확대 보급에 대한 소방재난본부 의견서 제출  
(남창진 의원)

9. 2024년도 하반기 소방재난본부 자체감사 처리 결과  
(봉양순 의원)
10. 최근 5년간 공상자 중 요양이 필요한 직원 현황  
(박성연 의원)
11. 강제처분 관련 담당 민원 업무 처리 담당 부서 신설(119 광영수사대 확대·개편 계획) 계획안  
(최민규 의원)
12. 소방안전교육 유상과 무상으로 추진 경위 및 선정 기준 자료  
(최민규 의원)
13. 실화재훈련장 국외 건립 사례 벤치마킹 결과  
(최민규 의원)
14. 소방학교 저수조 확대와 오염수 여과 현황  
(남창진 의원)
15. 실화재 훈련장 건립 관련 소방 요구사항 포함된 제안서, 심사 기준과 평가 자료 등 공모 자료 전체  
(박성연 의원)
16. 소방대원 급식비 및 출동 간식비 필요 예산안 보고  
(위원회)

## [물순환안전국] — 6건

1. 서울형 하수악취 자율형 목표관리제 기본계획 및 운영 현황(최근 3년간 자치구 실적 및 평가 포함).  
(강동길 위원장)
2.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재원별, 연도별 적립 및 집행 현황.  
(강동길 위원장)
3. 서울시 투자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타 기관 결과 분석 자료.  
(남창진 위원)
4. 토양오염 실태조사 중도 취소 현황(상세 사유 포함).  
(이은림 위원)
5. 물순환안전국 기술용역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반복 계약 근거자료.  
(이은림 위원)
6. 빗물펌프장별 복합화 추진 현황.  
(박성연 위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1건**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택 운영 지침.  
(김동욱 위원)

## [건설기술정책관] — 7 건

1. 월드컵대교 공사의 도급 업체들에 대한 자료  
(최민규 위원)
2. '24년 실시한 민간 공사장 불법하도급 공사장 30개소 내역과 점검  
결과  
(봉양순 위원)
3. 최근 3년간 부적합 건설사업자 적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  
(강동길 위원장)
4. 부적합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기준  
(강동길 위원장)
5.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입찰 자격제한 기준 및 업체현황  
(강동길 위원장)
6. 부실공사 제로 정책의 최신 수립 현황  
(김용호 부위원장)
7. 건설공사 계약금액 순회 점검 개선 방안  
(남창진 위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5 건

1.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 재제출할 것.  
(김동욱 위원)
2. 8월 이후 폭염 관련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제출.  
(봉양순 위원)
3. 서울시 공공공사 지열시스템 준공 이후 3년간 운영 현황.  
(박철성 부위원장)
4.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시공사 등 회사명이 누락된 자료는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  
(강동길 위원장장장)
5. 최근 3년간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 내역  
(강동길 위원장)

[붙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

[붙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

연번	1	상임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 <b>도시안전건설위원회</b> ,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교육위원회
제목	서울 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10가지 문제점 과 실행안		
내용	<p>서울 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10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점 과 실행계획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p> <p>### 1. <b>**부동산 투기와 불법 건축물 관리 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제점**</b>: 불법 건축물의 관리 부실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 왜곡.</li> <li>- <b>**실행 계획**</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확대 및 전담 조사팀 신설.</li> <li>2. 위반 건축물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방침 강화.</li> <li>3. 부동산 투기 방지용 공공감시 시스템 구축 및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li> <li>4. 공공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기 방지 시스템 운영.</li> </ol> </li> </ul> <p>### 2. <b>**청년 주거 문제 및 임대주택 공급 부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제점**</b>: 청년 주거비 부담 및 임대주택 공급 부족.</li> <li>- <b>**실행 계획**</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기존 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강화.</li> <li>2.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마련, 임대료 일부 지원 및 주거비 감면 혜택 제공.</li> <li>3. 민간 협력을 통한 청년 주거 공공임대 플랫폼 개발 및 운영.</li> <li>4. 도시 내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촉진.</li> </ol> </li> </ul> <p>### 3. <b>**교통 체증과 대중교통 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제점**</b>: 일부 지역의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li> <li>- <b>**실행 계획**</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중교통의 환승 시스템 개선 및 노선 추가 검토.</li> <li>2. 서울 외곽 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강화, 버스 및 지하철 노선 확대.</li> <li>3.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혼잡 구간 관리.</li> <li>4.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확대 및 안전한 주행 인프라 구축.</li> </ol> </li> </ul>		

#### ### 4. \*\*노후된 인프라 시설 관리 미흡\*\*

- \*\*문제점\*\*: 노후된 공공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유지 보수 미흡.
- \*\*실행 계획\*\*:
  1. 서울 내 주요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정기 점검 주기 강화.
  2. 긴급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예산 우선 배정.
  3. 사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인프라 단계별 보수 계획 수립.
  4.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신고 플랫폼 운영.

#### ### 5.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 \*\*문제점\*\*: 불필요한 사업에 자원 낭비,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 \*\*실행 계획\*\*:
  1. 예산 심사 절차 강화 및 외부 전문가 그룹의 예산 검토 과정 투입.
  2. 기존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정밀 감사 및 폐지 검토.
  3. 시민 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제도(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4.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성과연계 예산제도 도입.

#### ### 6. \*\*환경오염 문제\*\*

- \*\*문제점\*\*: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
- \*\*실행 계획\*\*:
  1. 한강 및 주요 하천 주변의 오염원 철거 조사 및 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2.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차량 도입 지원 및 디젤 차량 규제 강화.
  3. 공원, 녹지 확대를 통해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 효과 증대.
  4. 민관 협력 하에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7. \*\*불평등한 교육 자원 배분\*\*

- \*\*문제점\*\*: 교육 시설 및 자원의 지역 간 불평등.
- \*\*실행 계획\*\*:
  1.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 지원 예산 우선 배정.
  2. 지역별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재정 균형 배분.
  3. 지역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학습 자원 확충.
  4. 모든 학교에 동등한 디지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8. \*\*학교 내 폭력 및 안전 문제\*\*

- \*\*문제점\*\*: 학교 내 학생 간 폭력과 안전 문제.

- \*\*실행 계획\*\*: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사 및 심리치료사 배치 확대.
2. 학생, 교사,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신고 및 지원 시스템 구축.
3. 학교 내 CCTV 추가 설치 및 안전 감시 체계 강화.
4. 학교 내 폭력 문제 발생 시 엄정한 조사 및 처벌 강화.

### 9. \*\*교육행정의 과도한 경쟁 중심 정책\*\*

- \*\*문제점\*\*: 지나친 성적 경쟁으로 인한 학생 스트레스 및 정신 건강 악화.

- \*\*실행 계획\*\*:

1.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2. 경쟁 완화형 평가제도 도입, 절대평가 및 과정 중심 평가 확대.
3.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및 학교 내 복지 서비스 강화.
4. 예체능 및 진로 탐색 중심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0.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미흡\*\*

- \*\*문제점\*\*: 디지털 전환이 미흡해 공공서비스 접근성 저하.

- \*\*실행 계획\*\*:

1. 서울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촉진,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
2.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 구축.
3. 공공 데이터의 개방 및 시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운영.
4. 모바일 친화적 공공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홍보.

비고

연번	2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서울특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		
현황 및 문제점	<p>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3번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서울시민 불편은 물론 도로 및 기타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된 바 있으며,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모두 200여 건으로,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점검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지하수의 흐름이 강한 서울 특성,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지하수위의 변화 등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꺼짐 현상을 대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서울시민 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드립니다.</p>		
개선 건의	<p>서울특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p>		
세부 계획	<p>서울특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 올해 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현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연간 대비 계획이 적절했는지, 2. 땅꺼짐 현상에 대해 빠른 대처와 시민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3. 차후 가능성 있는 땅꺼짐 현상 예상 지역에 대한 대응책을 완비했는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안드립니다.</p>		
기대 효과	<p>이를 통해, 올해 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현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연간 대비 계획이 적절했는지와 함께, 빠른 대처와 시민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봄으로서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운전,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차후 가능성 있는 땅꺼짐 현상 예상 지역에 대한 대응책을 완비했는지 살펴봄으로서, 차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땅꺼짐(싱크홀)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필요성 제보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연번	3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싱크홀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확립 및 시민제보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p>달리던 앞차가 갑자기 폭 꺼졌다...연희동 싱크홀 사고 영상보니 [출처:중앙일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067">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067</a>(<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067">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067</a>) 최근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도로가 갑자기 꺼지며 차량이 추락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하에 묻혀 있던 도시가스 배관이 손상되어 자칫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이 있었다. 소방 당국과 구청은 사고 원인으로 노후 상수도관과 빗물펌프장 관로공사를 지목했다. 이러한 싱크홀은 주로 노후한 지하 인프라와 부실한 공사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의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또한 시민제보를 통해 싱크홀 발생 사례를 수집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p>		
개선 건의	<p>싱크홀 예방을 위해서는 배관 시설을 비롯한 지하 인프라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하수도와 같은 지하 시설의 부실한 관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철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미비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주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한다. 또한, 시민 제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 체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p>		
세부 계획	<p>시민 제보 시스템을 통해 싱크홀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유지보수 관리 체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 예산 낭비 여부도 함께 조사하여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주기적인 점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강화. 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p>		
기대 효과	<p>시민 제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한 문제나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하 인프라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p>		

연번	4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지속 지연에 따른 폭우 대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보		
현황 및 문제점	<p>지난 2022년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서울특별시 곳곳에서, 특히 반지하 주택들이 침수되는 등 각종 재산 피해가 있었고, 서울시민들의 불편도 매우 컸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의 경우,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총 3군데서 진행될 예정이나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 지연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시간을 앞당기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복수의 기업이 아닌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된 것에 따른 것으로서, 1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다면 조속한 시일내 재공고를 하거나 해당 기업과 계약하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나아가 유찰이 계속되어 당장 3군데 동시 착공이 힘들면 3군데 중 1, 2군데 부터 시작하면 되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공사 시작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서울 관내 폭우 대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드리고자 합니다.</p>		
개선 건의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지속 지연에 따른 폭우 대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계획	<p>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지속 지연에 따른 폭우 대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1.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 있어, 유찰이 계속되어 당장 3군데 동시 착공이 힘들면 3군데 중 1, 2군데 부터 시작하면 되었음에도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며, 2. 1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다면 조속한 시일내 재공고를 하거나 해당 기업과 계약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며, 3. 차후 장마철 집중 호우를 막기 위해, 조속히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p>		
기대 효과	<p>이를 통해 현재 계속 지연 중인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지속 지연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혀나감으로서, 보라 확실하고 빠른 폭우 대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가능한 곳들 부터 빠른 공사들이 시작 가능해짐으로서, 보다 필요한 서울시민들에게 대규모 빗물 배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지속 유찰 및 지연에 따른 폭우 대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연번	5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보행권/인도 및 도로변의 지주 설치물 및 각종 설치물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	<p>문제 제기) 현재 저의 거주지는 동대문구 이문동입니다. 도로를 걸을 때 다음과 같은 *1) 각종 지주를 마주칩니다. 장애 또는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거나와 무관하게 비장애인인 저 역시 보행에 지장을 받습니다. 또한 전깃줄이 늘어져 있거나 노후한 안내문들이 불안정한 상태일 경우 위험도 느낍니다. 특히 이면도로의 경우 관리가 부실한 설치물들은 쉽게 우범지대화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신주, 각종 지주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행정감사가 진행되는지 *2)질문 드립니다. *1) 도로변의 설치물 1. 전기를 위해 설치된 전신주. 2. KT, LG, SK 등 통신회사 지주. 3. 국토부 소관으로 보이는 가로등을 위한 지주 4. 어린이 보호 구역, 주차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등 안내문 및 CC TV 등을 위한 지주. *2) 질문 및 제안 1. 질문 위와 같은 다양한 지주들은 각기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며 그 예산 및 관리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2. 제안 모든 설치물들이 지중화 된다면 좋겠지만 구도시의 경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 용량의 제한 및 관리 주체 상이로 각각 설치되었을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에 그 여러가지를 통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전신주에 가로등이 같이 설치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통신사 지주들과 안내문 지주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쉽게 마주칩니다. 가로등을 기존의 전신주를 이용, 부착했듯이 각종 안내판이나 CC TV, 통신사 지주를 함께 통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개선 건의	<p>무분별할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통신사 지주, CCTV, 교통안내 표지판 지주 등을 통합해야 하며 각기 운영 관리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는 것인지에대한 질문. 가로등을 기존의 전신주를 이용, 부착했듯이 각종 안내판이나 CC TV, 통신사 지주를 함께 통합할 방안 마련 제안.</p>		
세부 계획	<p>각각의 지주 설치 인가 및 관리 감독처를 일관화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기대 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하게 방치되는 설치물들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보장.</li> <li>2. 관리 주체 일관화로 관리행정 편의증진 및 불필요한 세금과 경비 절약</li> <li>3. 도시 미관 개선.</li> </ol>		

연번	6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횡단보도, 인도만큼 높이자		
현황 및 문제점	<p>서울 시내 곳곳의 거리를 지나다보면 곳곳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에 대한 개량공사를 완료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통행인인 보행자들과 장애우나 그들이 타고 나니는 휠체어, 혹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인 걸로 안다. 물론 업무 담당자들도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한 후 내린 결정이겠지만, 이런 공사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어떤 곳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현장의 지형이나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업체나 시공자들이 기간에 맞추느라 졸속하게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간선도로나 스쿨존지역에서 더 그러하다. 횡단보도의 표시(폭)보다 턱없이 좁게 만들어지고, 제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진입을 방해하여 휠체어나 자전거 등은 2대가 서로 교행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경사가 높게 시공된 곳에선 비라도 내리거나 채 마르지 않은 낙엽들이 놓여 있거나, 추운 겨울엔 얼음이라도 얼면 사람들이 쉽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경우 골절과 같은 부상을 당하기 쉽고, 자전거 등도 쉽게 넘어지곤 한다. 이렇게 되면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던 사업이 오히려 사고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혐오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다.</p>		
개선 건의	<p>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인도의 턱을 낮추기보다 횡단보도의 턱을 인도만큼 높이는 험프(Hump : 둔덕)형이 오히려 보행자나, 노약자, 장애우 혹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싶다.</p>		

<p><b>세부 계획</b></p>	<p>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곳곳에서 횡단보도 인도 턱 낮추기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한 공사 결과, 어떤 곳에서는 횡단보도만큼 충분히 넓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턱없이 좁거나, 지나치게 경사져 자전거나 휠체어, 유모차 등이 신호를 기다리면서 멈추어 있기가 힘든 곳도 많다. 이런 곳은 주로 스쿨존이나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서 많이 목격된다. 그런데 이런 지역의 경우 여러 대의 자전거가 동시에 진입하거나, 자전거와 휠체어, 혹은 유모차 등이 교행하게 될 때, 일방에서는 멈춰 서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인도 낮추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이용하게 되어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고, 이면도로의 경우 속도를 낸 자동차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전거를 발견하고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 낮추기 공사 후 배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에서는 비라도 내리게 되면 빗물이 넓게 고이게 되어 횡단보도 이용자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가을엔 바람이라도 불고, 낙엽이라도 쌓이게 되면 허방다리를 짚거나, 겨울철 눈이 쌓이거나 얼음이라도 얼게 되면 사람들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심하면 골절이 되어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 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애써 그런 곳을 피하게 되는 현상을 보면,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p>
<p><b>기대 효과</b></p>	<p>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애써 그런 곳을 피하게 되는 현상을 보면,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횡단보도 인도 턱 낮추기 사업은 뜻하는 바에 부응하는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개선 건의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횡단보도 통행인들과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보행의 방해를 주지 않고, 주변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서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해 주고,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감을 줄 수 있게 횡단보도를 인도만큼 높이는 험프(Hump : 둔덕)형 횡단보도를 개설한다면, 세부실태(문제점)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이 공법은 사업 시공기간을 단축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도 감소시킬 수 있으려, 도로의 디자인까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횡단보도를 인도의 연장선에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험프(Hump : 둔덕)형 횡단보도 개설 방안을 제안해 본다.</p>

연번	7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한강 88도로 전철과 연계 임시 정거장		
현황 및 문제점	<p>오늘 참석하고 의제를 발표한 이민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전부터 시민 불편 상황으로 88도로는 차도 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절대 정차할 수 없는 경부 고속도로는 동탄 죽전 경기 남쪽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고속도로 위에 죽전역 임시 정거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라도 전철과 연계해서 경기 남부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 오지 않아도 지나는 길에 고속도로 임시 정거장을 이용합니다 수도권 고속도로도 가천대 역에 임시 정거장을 만들어서 성남시민 송파구민은 복잡한 도심을 들어 오지 않아도 자유롭게 승하차를 하는 것은 도로가 시민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88도로 마지막쫘 천호역 암사역 등등 전철과 연계되는 지점에 잠시 설 수 있는 임시 정거장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하남 구리 모두가 지나는 길에 자유롭게 도로를 이용할것 같습니다 정차를 할 수 없으니 도심으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불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천대역 연계와 죽전역 연계를 보십시오 외곽에 살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p>		
개선 건의	88도로 전철 연계노 교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 계획	88도로 임시 정거장 설치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호역 암사역 강추		
기대 효과	복잡한 도심을 들어가지 않아도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대입니다		
비고			

연번	8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시민안전 대책 철저		
현황 및 문제점	영등포구 소재 도림동 새마을금고 주변 보도블럭 및 차도와 인도 경계석 교체 공사를 하면서 안전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사고 우려 및 도심미관을 크게 해침(첨부 사진 참고)		
개선 건의	영등포구 소재 도림동 새마을금고 주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주차장, 공항버스 주차장을 끼고 있는 도로 보도블럭과 경계석 교체 공사를 하면서 안전 시설물 설치나 안내가 전혀 되지 않아 보행시민 및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줌. 제대로된 안전 시설물이나 안내가 요구됨.		
세부 계획	보행로에 깔아놓은 천들이 한쪽으로 밀려 보행에 불편함으로 고루 잘 펴고, 공사 현장에는 안전 띠와 안전판 등을 설치해 시민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공사 주변 정리가 되지 않아 자재 등이 널부러져 도심 미관을 해치므로 깔끔한 정리가 요구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불편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 시민 안전과 보행이 편리함.</li> <li>-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 승하차에 편리를 제공함, - 도심 미관을 드높이게 됨</li> </ul>		
비고			

연번	9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수락고가차도 공사방치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용	<p>수락고가차도 방음벽 공사 방치에 대한 궁금증.</p> <p>(1).수락고가차도 공기가 20204.12까지이지만 주민들이 사는 은빛아파트 구간만 4개월째 진행 안하고 있는지?</p> <p>(2). 주민생활공간이 우선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방음벽 철거이후 아무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p> <p>(3). 공기가 남더라도 주민불편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락고가차도는 왜 예외인지?</p> <p>(4). 4개월 동안 시행기관이 주민들에게 직접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회 등의 절차가 왜 없었는지?</p> <p>궁금합니다.</p>		
비고			

연번	10	상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목	가을철 낙엽 인도에서 차도로 쓸어내려 운행차량에 날려 보행시민불편		
현황 및 문제점	가을철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인도의 낙엽을 차도로 날려 보내 방치함으로써 운행 차량으로 인해 낙엽이 날리고 또 낙엽이 운행차량 바퀴에 짓이겨 지면서 먼지화되어 날리면서 보행시민들에게 불편을 줌(사진은 영등포구 도림로 307 서울성락교회 주변 맞은편) 또 차도에 날려보낸 낙엽으로 인해 차도 배수로(하수)가 낙엽으로 막혀 많은 비가 내릴 시 하수가 역류해 각종 재해 요인이 됨		
개선 건의	인도 낙엽을 차도로 내려 보내지 말고 인도에 모아 비닐 쓰레기 봉투에 담든지 낙엽 포대에 담아야 할 것임. 정 차도로 날려 내려 보내려면 그 즉시 차도의 낙엽도 함께 쓸어 담아 치워서 도로를 말끔히 해야 함.		
세부 계획	인도의 낙엽이나 차도의 낙엽은 동시에 청소해 보행시민이나 차량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 인도의 낙엽을 차도로 날려 보내 방치하면 일부 낙엽은 또다시 운행 차량에 날려 인도로 들어옴. 이로 인해 인력 낭비 일부 초래됨.		
기대 효과	인도와 차도의 낙엽을 동시에 청소함으로써 - 주변 도심이 청결해지고 시민 보행 불편 해소 및 차량 운행이 원활해짐. - 차도 낙엽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하수구 막힘을 방지함. - 청소 인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		
비고			